

#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Adolescents' Proper Manners and Strengths of Family Life :

Generational Transfer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강사 김경아\*

명예교수 이정우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im, Kyung-Ah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Woo

---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generation transfer of proper manners from mothers to adolescent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roper manners and strengths of family life.

The data from 826 questionnaires (413 pairs of adolescents and moth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extent of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of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both parties generally abided by good manners,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emerged in the patterns. Second, both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were influenced by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self-esteem, values of humanism, emotional intimacy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soci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good manners. On the other hand, adolescent children were affected the most by the emotional intimacy with mothers. Third, children generall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manners according to the manners their mother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rengths of family life for adolescent children depending on their implementation of manners. Fifth, when comparing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mothers' psychological determinants on strengths of family life and adolescent children's psychological determinants on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strengths of family life gained more credibility as more variables were added.

---

△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예절수행(proper manners), 가정생활건강성(strengths of family life), 세대전이(Generational Transfer)

## 1. 서론

가정이란 공동의 주거, 경제적 협력,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조직의 하나로 그 속에서 초기 사회화의 바탕이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적절한 애정과 인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 등을 부여받

지 못하면 이후 접하게 될 사회적 외부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문제 청소년 뒤에 문제 가정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는 곧 '예절바른 청소년 뒤에는 밝고 건강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건전한 가정환경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심신이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양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자녀양육의 책무를 지닌 부모는 청소년들이 독립된 성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을

\* 주저자 : 김경아(E-mail : kakim@sookmyung.ac.kr)

조성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술선수범을 함으로써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가정의 정서적·교육적 기능은 매우 약화되고 있으므로 도덕적 부재현상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의 근간을 이루는 예절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모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은 곧 청소년기 자녀의 준거모델이 될 것이다. 즉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특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들의 올바른 예절습득을 위해서 부모의 올바른 예절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세대의 경험이 다르고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정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공감대 형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인접학문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측면 즉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와 관련된 병리적인 접근에 집중됨(김용석 외, 2001; 장일순, 2000)으로써 가정이 갖는 긍정적인 자녀양육의 기능과 역할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다양한 가정문제를 역기능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생활형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개인이 성장할 때 뿐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인간의 정서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가정의 건강성은 청소년 개인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므로 자신이 속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의 문제는 개개인의 안녕(安寧)은 물론 미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 가족은 다양화되어가고 부모 자녀간의 가치관과 생활규범의 불일치로 가정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학업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가다듬고 상호간의 배려에 바탕을 둔 예절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절수행의 차이를 규명함과 동시에 모자녀간의 세대전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예절수행이 건강한 청소년기 가정을 유도하는 기저가 됨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예절수행

예절수행이란 실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가 생활전반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실천 정도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먼저 어머니의 예절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 최근에 와서야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까닭에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980년대는 주로 생활관이나 예절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측정한 초기의 연구들로서 가치를 지닌다(최재선, 1985; 황인명, 1980).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연구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대상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인간발달 각 단계에 따라 유아기(정현아, 1994), 아동기(김윤환, 1993; 이정우·김명나, 1999), 청소년기(김진규, 1996; 이길표, 1994) 자녀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예절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역할 및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예절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구축되면서 생활예절 의식과 실천적 측면의 수행을 접목시켜 이를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선주(1997)의 연구와 고등학생 및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길표(1997), 그리고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예절의식과 예절수행 간에 높은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며 예절수행에 앞서 예절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정우·김경아(1997)는 기존의 예절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최초로 요인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척도개발을 통해 예절수행을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단순 실태분석에서 벗어나 예절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치성향, 의사소통도, 자원적정인지도 같은 심리적 변인을 밝혀냄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 변인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지되고 있다(김지영·이정우, 2002; 이정우·김경아, 1999; 2002; 이정우·김명나, 1999; 이정우·김연화, 2001). 또한 인생주기에 따라 신혼기(김지영·이정우, 1999)나 중년기 주부(이정우·김경아, 2002)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시집단의 특성을 밝혀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혼남성까지 포함한 연구(김연화, 2002)를 통해 성별에 따른 예절수행의 수준이 파악되었다.

다음 청소년의 예절수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예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예절의식이나 예절수행을 다루거나 혹은 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실태연구(김명옥, 2000; 지금수·나지원·이진숙, 2002; 차혜연, 1992; 최원희, 1999)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예절의 실천보다는 의식수준이 다소 앞서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간의 정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김정애, 1992; 손하중, 1998)들이 이루어진 결과 전반적으로 예절교육을 통해 예절수행인 실천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생활만족도나 가정생활건강성 같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절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연구(이정남, 2000; 이정우·김경아,

2002)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가정생활건강성

가정생활건강성이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기능 즉, 가족성원들 간의 유대감과 시간공유 및 의사소통 그리고 위기시 대처능력 등을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을 의미한다.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1930년 정신의학계에서 주로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60년대 초 미국의 Otto(1962)에 의해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건강한 가족임을 자처하는 27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한 가정생활의 강점이 되는 요소들을 밝혀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제가족의 치료보다는 예방 및 교육차원에서 가족 내 애정, 의사소통 패턴,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원간의 의도적인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연구방법상의 발전으로 다양한 척도가 제작되었고 여러 척도들이 제시한 개념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Green et al., 1985; Lee, 1988)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횡단적인 비교연구(Asay, 1998; Meredith et al., 1992; Xie, 1994)가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소년(Brage et al., 1993; Carson, 2002; Ellis, 2000; Harper, 1996; Leggett, 1999)이나 대학생(Arico, 1995; Randall, 1995)의 입장에서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파악하는 등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을 규명하려는 시도(Brage et al., 1993; Ellis, 2000)들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가족치료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가정학, 의료사회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다. 가정학적 측면에서는 어은주·유영주(1995)가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척도개발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가족간의 유대, 의사소통, 가치체계공유,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은주(1996)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과 건강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서구에서 제시된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족내의 관계적인 특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은주·유영주(1995)의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달리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오정옥(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최희진·유영주(2001)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족기능도와의 관계를, 김나비·유영주(2001)는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의 관계를, 홍성례·유영주(2001)는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경지영(2000)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등 가정생활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농촌가족에 관심을 두고 양순미·유영주(2000)는 부모와 중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간 건강성의 차이를 밝혀냈으며 의사소통과 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 의사결정과 가족일체감, 가족응용성과 사회적인 지지, 가족의례 창출을 농촌건강가족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윤세은(200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가정생활건강성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개념상의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반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대별로 변화되는 가정생활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3. 관련변인 고찰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및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관련된 연구들이 초기단계에 있어 대상을 달리한 연구들을 일부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따른 예절수행은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지영·이정우(2002),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예절수행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인성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을 연구한 이정우·김경아(2002)는 자아존중감이 가정생활건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어은주, 1996; Farrell & Barnes, 1993)들의 결과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 2) 인본주의 가치성향

인본주의 가치성향과 예절수행을 관련지어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지영·이정우(2000)와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결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생활예절 수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인본주의 가치성향과 가정생활건강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인본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 3) 상대적 생활수준

상대적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월평균소득이나 경제 생활의 변인에 따라라도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예절수행이 월평균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금수·나지원·이진숙(2002), 차혜연(1992)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청소년이 생활예절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원희(1999)의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한편 상대적 생활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세은(2000)과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와 어머니의 예절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 결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 때 청소년 자녀의 예절수행이 높다고 나타났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과 관련지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 결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관계특성이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저가 됨이 밝혀졌으며, 부모와 자녀 세대의 건강성을 비교한 양순미·유영주(2000)도 중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자녀세대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건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5) 사회적 지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회적 지지와 예절수행을 다룬 선행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은주(1996), Antonucci(1990), Olson 등(1983)의 결과, 둘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은 개개인 주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예절수행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은 어

머니의 예절수행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및 가정생활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예절수행 및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과 예절수행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내용타당도는 전공교수 5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특히 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의 변인은 척도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들의 구조가 타당한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1) 예절수행의 척도는 선행연구(이정우·김경아, 1997; 1999; 2002; 이정우·김연화, 2001)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의 인지수준 및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각각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영역은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등의 총 6영역으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34, 3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검증 결과  $\alpha = .91$ ,  $\alpha = .90$ 으로 나타났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가정생활건강성의 척도는 Stinnett와 DeFrain(1985)의 척도를 동양문화권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실시한 Xie(1994)의 연구와 Randall(1995)의 FAMPRO(Family Profile) 및 어은주(1996)의 척도를 병합하여 작성한 이정우·김경아(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가족원간의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등의 4영역 총 33문항이 완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 = .97$ 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은 박애선(1993)의 설문을 수정하여 총 1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alpha = .77$ ,  $\alpha = .82$ 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인본주의 가치성향은 임정빈(1988)이 재구성한 4차원의 가치성향 척도 중에서 인본주의(人本主義)에 해당하는 총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alpha = .76$ ,  $\alpha = .64$ 로 나타났다.

5) 상대적 생활수준은 Davis(1981), Dillard(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박미금·계선자(1994)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alpha=.83$ ,  $\alpha=.82$ 로 나타났다.

6)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된 강완숙(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alpha=.79$ ,  $\alpha=.88$ 로 나타났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친밀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7)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황윤경(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  $\alpha=.86$ ,  $\alpha=.84$ 로 나타났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지역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할당 표집(quota sampling)방법을 통해 청소년기 가족 중 중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지은 것은 청소년기 초기단계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급변의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내 어머니의 자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전제된 시기이므로 중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기 가정의 성공적 조건들을 정립해 보기 위함이다.

다. 본조사에 앞서 2002년 7월9일~13일 사이에 청소년과 그 어머니 33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8월26~9월9일에 걸쳐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고 지역구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25개구를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4개구씩(강남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노원구·동대문구·마포구·성북구)을 선정하였다. 총 1200부(600쌍)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4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어머니나 청소년기 자녀 한쪽이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와 기제가 불충분하여 신뢰도가 낮은 81부를 제외한 862부(431쌍)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PC WIN과 LISREL 8.0ver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 중다회귀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431쌍)

어머니				청소년기 자녀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연령	40세 미만	95	22.0	성별	남학생	179	42.0
	40~45세 미만	252	58.5		여학생	252	58.0
	45세 이상	84	19.5	학년	1학년	141	32.7
학력	중졸 이하	56	13.0		2학년	144	33.4
	고졸	183	42.4		3학년	146	33.9
	대졸	171	39.7	학교 유형	남학교	61	14.1
	대학원졸 이상	21	4.9		여학교	99	23.0
월평균 가계 총소득	150만원 미만	76	17.6		남녀공학	271	62.9
	150~250만원 미만	106	24.6	성적	상	121	28.1
	250~350만원 미만	110	25.5		중	251	58.2
	350~450만원 미만	50	11.6		하	59	13.7
	450만원 이상	89	20.7	종교 유형	기독교	147	34.1
취업 여부	유	228	52.9		불교	67	15.5
	무	203	47.1		천주교	64	14.9
종교 유형	기독교	125	29.0		무교	153	35.5
	불교	115	26.7	형제자매 수	1명	38	8.8
	천주교	74	17.2		2명	301	69.8
	무교	117	27.1		3명 이상	92	21.4
가족 형태	핵가족	367	85.2	예절교육 수강여부	유	238	55.2
	확대가족	64	14.8		무	193	44.8
예절교육 수강여부	유	150	34.8				
	무	281	65.2				

2.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및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수준

1)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각각의 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정도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예절수행 정도는 평균 4.07(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81점)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정도는 평균 3.60(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2점)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자녀에 비해 어머니가 비교적 예절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주부의 예절수행(78점)을 다룬 이정우·김경아(1999)와 청소년의 예절수행(72점)을 다룬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기 주부의 예절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공중예절(4.29), 식사예절(4.22), 인사예절(4.04), 대화예절(3.98), 가정예절(3.96), 사교예절(3.74)의 순으로 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는 식사예절(4.04), 사교예절(3.91), 인사예절(3.73), 가정예절(3.58), 공중예절(3.36), 대화예절(3.20)의 순으로 예절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식사예절의 영역은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집단 모두 높은 데 반해 공중예절의 영역은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에 대조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예의 시작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夫禮之初는 始諸飲食)'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부터 기본예절을 가르쳤다고 한다. 즉 식사예절이 어머니나 청소년기 자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전통예절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청소년기 자녀의 공중예절 영역은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공중예절 수행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외국과의 횡단적 비교연구(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3)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의식 같은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질서의 시민적 자질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평균 3.58(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2점)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 비교적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어은주, 1996)이 인지하는 건강성(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8점)에 비해서는 낮으나 고등학생(윤세은, 2000)이 인지하는 건강성(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7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즉 청소년기 초기에 인지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건강성은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자신을 좀더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청소년기 후기(장휘숙, 2001)에 비해서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유대감(3.92), 위기대처능력(3.66), 의사소통(3.40), 시간공유(3.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가족간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경지영, 2000; 어은주, 1996; 윤세은, 2000; 이정우·김경아, 2002)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 가족은 세대를 초월하여 가족간에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영역 중 시간공유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한 박미석 외(200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따른 시간제약과 부모의 직장생활시간 불규칙성 및 활성화되지 못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청소년기의 가정생활건강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가족간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기 가정생활건강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

청소년기 자녀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3.92	.78	3.27	.93	3.40	.82	3.66	.75	3.58	.72

3. 심리적 변인이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및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

1)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모-자녀

<표 2>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구분	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	3.98	.53	4.04	.62	4.29	.51	3.96	.57	3.74	.63	4.22	.56	4.07	.40
청소년기 자녀	3.20	.70	3.73	.67	3.36	.60	3.58	.74	3.91	.71	4.04	.63	3.60	.47

간 정서적 친밀도( $\beta=.35$ ), 자아존중감( $\beta=.19$ ), 사회적 지지( $\beta=.16$ ), 인본주의 가치성향( $\beta=.12$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4%였다. 즉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예절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가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관계에 따라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가정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하위영역 중의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최동숙, 1991; Hayes & Stinnett, 1971)들과 또한 자녀를 둔 중년기 주부 스스로의 예절의 실천은 곧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중년기 주부의 예절수행과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는 상호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성향인 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표현적 역할(expressional role)을 강화시키는 기저가 되므로 어머니 스스로의 도덕적인 예절수행을 이끄는 중요한 배경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정적인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기혼여성을 포함한 관련 선행연구(김연화, 2002; 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명나, 1999)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며 자녀에게 건전한 모델이 된다고. 한 Mussen(1974)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인 경우 자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절수행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예절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의 규범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도덕성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강원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가족을 둘러싼 주변인들과의 공동관계망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선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인본주의를 이타주의(利他主義)와 인도주의(人道主義)라고 설명한 것(Mall, 1990)에 근거할 때 인본주의 가치성향은 인간의 예절수행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 변인이라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34$ ), 사회적 지지( $\beta=.22$ ), 인본주의 가치성향( $\beta=.16$ ),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beta=.02$ )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7%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절의 목표인 자기관리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박성연·이종미·임숙자, 2001)을 고려할 때 이는 청소년들의 바른 태도인 예절수행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앞의 <표 4>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자아존중감은 세대를 초월하여 예절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인본주의 가치성향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 결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 때 청소년 자녀의 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예절 같은 정적 영역의 교육에는 가정 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은 대체로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지만 아직도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승인을 필요

<표 4>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아존중감	-	-	.27	.23***	.17	.20***	.19	.17**	.23	.18***	-	-	.15	.19***
인본주의 가치성향	-	-	-	-	-	-	-	-	.17	.13*	.14	.12**	.11	.12*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	-	-	-	-	-	-	-	-	.13	.15**	-	-	-	-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21	.25**	.17	.17***	.17	.20***	.42	.45***	.13	.12*	.25	.28***	.27	.35***
사회적 지지	.11	.12*	.14	.14**	-	-	-	-	.13	.12*	.10	.11*	.11	.16**
상수	1.95		1.97		2.42		1.34		.85		2.24		1.73	
R <sup>2</sup>	.15		.14		.14		.30		.19		.15		.34	
F	14.84***		13.70*		14.00***		35.71***		19.71***		14.69***		42.02***	

\*p<.05 \*\*p<.01 \*\*\*p<.001

<표 5>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아존중감	.35	.32**	.31	.30**	.25	.27**	.22	.19**	.13	.12*	.22	.23**	.25	.34**
인본주의 가치성향	.19	.06*	.19	.14*	.12	.10*	-	-	.25	.17**	.17	.14*	.16	.16*
상대적 생활수준	-	-	.09	.09*	-	-	.14	.14**	-	-	-	-	-	-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	-	-	-	-	-	.23	.28**	-	-	-	-	.06	.02**
사회적 지지	.22	.05**	.20	.21**	-	-	.21	.20**	.18	.18**	.12	.13*	.15	.22**
상수	.52		.86		1.52		.41		1.43		2.24		1.19	
R <sup>2</sup>	.23		.26		.14		.35		.14		.12		.37	
F	24.28**		29.42**		13.47**		44.50**		13.22**		10.93**		48.23**	

\*p<.05 \*\*p<.01 \*\*\*p<.001

로 한다(장휘숙, 2001). 따라서 어머니 스스로 생활 속에서 올바른 예절수행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의 예절행동을 강화시킨다면 이는 곧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비행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앞의 <표 4>와 같이 긍정적인 관련성이 재차 확인됨으로써 예절의 치인(治人)기능이 증명되었다.

3)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하여 심리적 변인이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beta=.32$ ), 사회적 지지( $\beta=.25$ ), 상대적 생활수준( $\beta=.23$ ), 자아존중감( $\beta=.20$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51%였다. 즉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상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만큼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관계특성이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세대의 건강성을 비교한 양순미·유영주(2000)도 중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자녀 세대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건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벗어나 또래관계망이 확대되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변인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건강성은 주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선행연구들(어은주, 1996; Antonucci, 1990; Olson et al., 1983)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지지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공적부조형태 보다는 가족 내 사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의 제공자가 부모임(DeRoiser & Kupersmidt, 1991)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에 부모를 포함한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도 가정생활건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세은(2000)의 연구와

<표 6>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생활건강성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아존중감	.22	.09**	.28	.20**	.16	.13**	.23	.20**	.22	.20**
인본주의 가치성향	.14	.09*	-	-	-	-	.20	.13**	-	-
상대적 생활수준	.23	.21**	.37	.29**	.19	.17**	.17	.16**	.23	.23**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26	.31**	.23	.23**	.30	.34**	.16	.19**	.27	.32**
사회적 지지	.22	.20**	.21	.16**	.29	.25**	.28	.26**	.25	.25**
상수	1.95		-.66		-.11		-.13		-.15	
R <sup>2</sup>	.44		.38		.41		.38		.51	
F	65.46**		49.36**		56.81**		50.00**		83.87**	

\*p<.05 \*\*p<.01 \*\*\*p<.001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소득수준이 충족될 때 가족의 안정이 보장되므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경제적 지표인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이 가정생활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높을수록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들(양순미, 2001; Farrell & Barnes, 1993)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들(김순기, 2001; 어은주, 1996; 오정옥, 1999; Satir, 1967)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볼 때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은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라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기 자녀는 그 수행정도가 낮은 집단의 청소년기 자녀에 비해 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과거 병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던 역기능적인 면의 세대전이(노치영·박성연, 1992; Forster, 1984)가 아니라 순기능적인 면의 세대전이를 증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이는 세대간의 연구를 시도한 일부 선행연구들도 지지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화시민의 실천 생활윤리로 예절수행을 연구한 이정우·김명나(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질서예절수행이 자녀의 질서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예절수행의 관련성을 일부 검증하였으며, 최영희·박공주(1997)도 10대 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예절교육과 예절의 실천을 연구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도출한

<표 7>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어머니	청소년기 자녀	대화 예절		인사 예절		공중 예절		가정 예절		사교 예절		식사 예절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대화 예절	상	3.37	B	3.87	B	3.42	B	3.80	B	3.97	B	4.14	A	3.71	B
	중	3.19	AB	3.73	AB	3.39	AB	3.50	B	3.85	AB	4.03	A	3.60	A
	하	3.06	A	3.56	A	3.24	A	3.42	A	3.74	A	3.97	A	3.47	A
	F	4.62**		5.07**		2.58*		7.52**		3.41*		1.82		6.20**	
인사 예절	상	3.28	A	3.83	B	3.44	B	3.75	B	3.99	A	4.12	B	3.70	B
	중	3.18	A	3.74	AB	3.39	A	3.52	B	3.91	A	4.06	A	3.59	AB
	하	3.17	A	3.59	A	3.23	A	3.46	A	3.82	A	3.91	A	3.49	A
	F	1.10		3.84*		4.04*		5.69**		1.69		3.54*		6.29**	
공중 예절	상	3.28	A	3.86	B	3.48	B	3.71	B	4.03	B	4.18	B	3.72	B
	중	3.14	A	3.70	B	3.32	B	3.55	AB	3.84	B	4.07	A	3.57	B
	하	3.16	A	3.59	A	3.26	A	3.46	A	3.83	A	3.85	A	3.49	A
	F	1.90		6.23**		5.20**		4.42*		4.02*		10.70***		9.33***	
가정 예절	상	3.30	B	3.79	A	3.45	B	3.78	C	3.92	A	4.10	B	3.69	B
	중	3.21	AB	3.76	A	3.42	A	3.60	B	3.95	A	4.09	A	3.64	A
	하	3.11	A	3.64	A	3.22	A	3.38	A	3.84	A	3.92	A	3.47	A
	F	2.30*		1.79		6.17**		10.05***		1.03		3.56*		7.90***	
사교 예절	상	3.37	B	3.91	C	3.49	B	3.72	B	4.04	B	4.19	B	3.74	C
	중	3.22	A	3.76	B	3.41	A	3.60	AB	3.90	AB	4.06	B	3.62	B
	하	3.04	A	3.54	A	3.20	A	3.44	A	3.80	A	3.89	A	3.45	A
	F	7.47***		10.45***		8.16***		4.62**		3.97*		7.71***		13.47***	
식사 예절	상	3.29	B	3.88	C	3.48	B	3.77	C	4.08	C	4.20	C	3.74	C
	중	3.22	A	3.72	B	3.35	AB	3.56	B	3.90	B	4.03	B	3.59	B
	하	3.05	A	3.53	A	3.21	A	3.34	A	3.66	A	3.82	A	3.40	A
	F	3.87**		8.31***		6.46**		11.10***		11.33***		11.42***		16.98***	
전체	상	3.35	B	3.93	C	3.51	B	3.81	C	4.02	B	4.21	B	3.77	C
	중	3.16	B	3.71	B	3.39	A	3.58	B	3.92	A	4.07	A	3.61	B
	하	3.09	A	3.53	A	3.16	A	3.31	A	3.75	A	3.79	A	3.39	A
	F	5.12**		12.75***		11.66***		15.83***		4.91**		15.64***		23.32***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예절수행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SD/2 이상, 중: M-SD/2~M+SD/2, 하: M-SD/2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절바른 행동의 실천은 자녀들에게 시민 사회에 걸맞는 가치규범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절이나 도덕성 같은 규범의 사회화에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보다는 부모 스스로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강완숙, 2000; Lickona, 1985)하다고 생각된다.

5.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연구문제 4>의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은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 모든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예절수

행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기 자녀가 예절수행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기 자녀보다 가정생활건강성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을 연구한 이정우·김경아(2002)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예절을 잘 수행할 때 올바른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가정생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대 가정은 편중된 지식위주의 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예절교육이 간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과 이를 격려하는 가정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절바른 청소년들이 가족간에도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을 볼 때,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실천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을 다지는 지름길이라 사료된다.

6.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 및 예절수행의 상대적 기여도

<표 8>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예절수행	가정생활건강성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대화예절	상	4.17	C	3.56	B	3.67	C	3.92	C	3.86	C	
	중	3.88	B	3.17	B	3.33	B	3.58	B	3.52	B	
	하	3.53	A	2.95	A	3.04	A	3.32	A	3.22	A	
	F	22.57***		15.34***		19.69***		22.57***		26.86***		
인사예절	상	4.20	C	3.54	B	3.67	C	3.79	C	3.87	C	
	중	3.96	B	3.36	A	3.46	B	3.60	B	3.65	B	
	하	3.57	A	2.88	A	3.06	A	3.37	A	3.22	A	
	F	23.57***		19.11***		19.79***		40.15***		30.45***		
공중예절	상	4.25	C	3.63	B	3.78	C	4.04	C	3.95	C	
	중	3.87	B	3.18	B	3.34	B	3.57	B	3.51	B	
	하	3.62	A	3.03	A	3.08	A	3.37	A	3.29	A	
	F	21.43***		14.45***		23.72***		28.09***		27.68***		
가정예절	상	4.44	C	3.84	C	3.93	C	4.14	C	4.11	C	
	중	3.91	B	3.20	B	3.40	B	3.64	B	3.56	B	
	하	3.35	A	2.74	A	2.82	A	3.16	A	3.04	A	
	F	107.99***		67.08***		97.50***		87.26***		130.34***		
사교예절	상	4.19	C	3.56	C	3.64	C	4.01	C	3.86	C	
	중	3.87	B	3.25	B	3.38	B	3.57	B	3.54	B	
	하	3.63	A	2.94	A	3.10	A	3.30	A	3.28	A	
	F	19.19***		15.84***		15.55***		37.29***		25.19***		
식사예절	상	4.11	C	3.38	B	3.54	B	3.85	C	3.74	B	
	중	3.90	B	3.37	A	3.43	A	3.62	B	3.60	A	
	하	3.68	A	3.30	A	3.16	A	3.43	A	3.36	A	
	F	11.24***		6.04***		7.85***		11.74***		10.48***		
전체	상	4.36	C	3.77	C	3.90	C	4.17	C	4.07	C	
	중	3.97	B	3.26	B	3.37	B	3.63	B	3.59	B	
	하	3.38	A	2.75	A	2.89	A	3.15	A	3.07	A	
	F	73.15***		49.39***		65.98***		87.93***		92.28***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예절수행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SD/2 이상,

중: M-SD/2~M+SD/2, 하: M-SD/2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연구문제 5>의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과 예절수행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처음 1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때 상대적 생활수준( $\beta=.27$ ),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beta=.19$ ), 인본주의 가치성향( $\beta=.12$ )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16%( $p<.001$ )에 머물렀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자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관리자인 주부가 가족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한한 가정자원을 배분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주부 자신과 가족 전체의 행복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기춘 외, 1998)에 비추어 볼 때 역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한 경우 재정적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자녀 입장에서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다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간관계가 어머니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끝으로 인본주의 가치성향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물질보다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자녀들과 상호작용할 때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갈등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어서 2단계에서 어머니의 예절수행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상대적 생활수준( $\beta=.26$ )과 가정예절( $\beta=.15$ )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21%( $p<.001$ )로 높아졌다.

<표 9>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	.07	.05	-.00	.00	-.03	.02	.01	.01
	인본주의 가치성향	.18	.12*	.14	.09	.10	.07	.07	.05
	상대적 생활수준	.27	.27***	.26	.26***	.12	.12**	.08	.08*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23	.19***	.10	.08	-.04	-.03	.00	-.02
	사회적 지지	-.05	-.04	-.09	-.07	-.01	-.01	.00	.16
어머니의 예절수행	대화예절			.06	.05	-.03	-.03	-.05	-.03
	인사예절			.03	.03	.00	.00	.00	.00
	공중예절			.14	.10	.00	.04	.06	.04
	가정예절			.19	.15*	.16	.12**	.15	.12***
	사교예절			.01	.01	-.03	-.03	-.04	-.04
	식사예절			.02	.02	-.02	-.02	-.06	-.05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					.21	.18***	.12	.11**
	인본주의 가치성향					.01	.07	.05	.03
	상대적 생활수준					.17	.17***	.14	.14***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24	.31***	.14	.18***
	사회적 지지					.25	.24***	.16	.16***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대화예절							.01	.01
	인사예절							-.04	-.04
	공중예절							.06	.05
	가정예절							.39	.40***
	사교예절							.07	.07*
	식사예절							.01	.01
상수		1.03		0.25		-1.18		-1.19	
R <sup>2</sup>		.16		.21		.55		.67	
F 및 유의도		14.96***		8.96***		28.92***		34.35***	

\*p<.05 \*\*p<.01 \*\*\*p<.001

즉 새롭게 추가된 어머니의 예절수행 변인 중 어머니가 가정에서 예절을 잘 실천할 때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예절수행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 건강한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가정을 보다 건전한 생활이념의 방향으로 인도(장명옥, 1985)해야 할 책무를 가진 가정경영자인 주부의 자질 항목에 가정생활 속에서의 예절수행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3단계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중 상대적 생활수준( $\beta=.12$ )과 어머니의 가정예절( $\beta=.12$ ) 및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인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beta=.31$ ), 사회적 지지( $\beta=.24$ ), 자아존중감( $\beta=.18$ ), 상대적 생활수준( $\beta=.17$ ) 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5%( $p<.001$ )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 중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고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가정생활을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및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가정생활의 건강성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훈육이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

에 근거한 상호관계망이 형성될 때 청소년기 자녀를 가정으로 이끄는 제반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가정의 물질적인 요소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을 추가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중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 $\beta=.08$ ), 어머니의 가정예절( $\beta=.12$ ) 및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 중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beta=.18$ ), 사회적 지지( $\beta=.16$ ), 상대적 생활수준( $\beta=.14$ ), 자아존중감( $\beta=.11$ )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예절( $\beta=.40$ )과 사교예절( $\beta=.07$ )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총 67%( $p<.001$ )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새롭게 추가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 변인 중 가정예절과 사교예절 수행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는 중요한 예절영역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가정예절 수행에 있어 2단계인 어머니의 예절수행과 관련지어 볼 때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예절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가정예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가정관리자인 어머니가 먼저 가정 내에서 가족원들에게 긍정적인 스타

로크를 주고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You're OK)의 인생 태도를 지닐 때(이정우 외, 2000) 이러한 건전한 생활규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정 내 예절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자신의 가정을 예가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사교예절 수행과 관련하여 가정 밖에서 가족 외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수기(修己)를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치인(治人)을 행함으로써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위로부터 가정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변인은 가정생활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정생활건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21%)을 고려할 때 예절바른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태도와 예절수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이들의 예절수행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생활규범의 실천적 측면에서 세대차이를 입증하였으며 하위영역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어머니나 청소년기 자녀 모두 식사예절의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중예절의 경우 어머니 집단은 높은 데 비해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낮은 점수를 나타내 청소년들의 공중예절 수행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이타주의(利他主義)적인 도덕적 교육과 예절의 실천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의 예절수행과 관련하여 심리적 변인이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높은 친밀감은 결국 부모로서의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어머니 스스로 예절의 기능인 수기와 치인의 실행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전제될 때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이 예절교육과 병합되어 연계성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가족간의 유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하위영역 중 시간공유가 가장 낮은 편이어서 청소년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하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의 장(場)을 마련하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환경 속에서 건강한 가족문화가 형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생활건강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모-자녀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의 청소년기 자녀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자녀보다 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순기능적인 면의 세대전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절행태는 청소년기 자녀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인 어머니의 여절바른 행동이 숭선수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청소년인 경우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건강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소년의 올바른 예절의 실천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간의 예절수행과 관련지어 총체적으로 볼 때, 결국 예절수행을 잘 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본받아 예절을 잘 지키는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 각자 자신의 본분을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자기관리와 가족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간에 갈등이 적고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관계가 성립되어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해 모-자녀 세대가 함께 하는 예절프로그램이 학교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특강이 아니라 연계성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예절교육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정에 초점을 두어 건전한 가치규범인 예절수행의 긍정적 역할을 밝히고 이의 세대전이를 검증하였으나 연구과정상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일반가정의 중학생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양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절수행 같은 도덕적 측면은 자연관찰법과 비구조화된 면접법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

미있다고 사료된다.

- 접수 일 : 2003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20일

【참 고 문 헌】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지경(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정도와의 관계-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비·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인지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연구-**. 교문사.

김명옥(2000). **중등학교 예절교육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1997). **직장인의 예절의식과 생활예절 실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화(200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제역동성·심리적 복지감**.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석·김정우·김성천(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7(겨울호), 71-106.

김윤환(1993). **기본생활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여(1991).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이정우(2002).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25-138.

노치영·박성연(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박미담·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박미석·이정우·김명자·계선자·김경아·우이란(2001).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I)-청소년의 여가문화 실태 및 여가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4), 61-78.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치적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숙(1997). **한국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의대지, 80(12), 433-442.

손하림(1998). **예절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생활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유영주(2000). **부모와 자녀세대가 인지한 농촌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의 특성 연구-딸자녀가 중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농가**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67-91.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교찰-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2), 153-172.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춘·박명희·윤정혜(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원사.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 연구 - 전통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_\_\_\_\_. (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이정남(2000). **중·고등학생의 예절태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우·이계순·오연옥·이행숙·이명숙·김연화·김경아(2000).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_\_\_\_\_.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생활규범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2, 39-56.

\_\_\_\_\_. (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2.

\_\_\_\_\_. (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_\_\_\_\_.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4, 1-16.

\_\_\_\_\_. **김연화(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69-85.

\_\_\_\_\_. **김연화·김명나·김경아·강기정(2001).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양서원.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명옥(1985). **가정관리학**. 교문사.

장일순(200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경희대사회학논집, 18, 65-83.

장휘숙(2001). **(전생애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박영사.

정현아(1994).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혜연(1992). **구용을 중심으로 본 여학생의 몸가짐에 관한 교찰**.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희·박공주(1997). **부모의 예절교육과 아동의 예절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2), 47-57.

최원희(1999). **구사에 대한 서울시 중학생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선(1985). **예절교육 특설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희진·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전업주부가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 연구-**. 교문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한국·일본·미국·프랑스·영국 6개국 의식구조 비교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황윤경(1996). 청소년 포레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계-서울시 중학교, 인문계고교 중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명(1980). 고등학교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생활관 운영개선을 위한 문제의 제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onucci, T.(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Antonucci(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alifornia: Academic Press.
- Arico, G.(1995).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a healthy famil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S.
- Asay, S. M.(1998). *Family strengths in Romania*.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Ph.D.
-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 685-693.
- Carson, D. K.(2002). Competence and family support of vulnerable and invulnerable adolescents representing scheduled tribes and scheduled castes in Indi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2), 249-270.
- DeRosier, M. E., & Kupersmidt, J. B.(1991). Costa Rican children's percept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Ellis, C. M.(2000). *Family strength patterns as a function of self-concept in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University of Virginia. Ph.D.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19-132.
- Forster, B.(1984). Upper middle class adolescent drug use: Pattern and factors. *Advances in Alcohol and Substance Abuse*, 4(2), 27-36.
- Green, R. G., Kolevzon, M. S., & Vosler, N. R.(1985). The Br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Harper, D. J. P.(1996). *A study of adolescent depression, suicid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in special education female students compared with regular education female students*. Walden University. Ph.D.
- Hayes, M. 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Lee, C.(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e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Leggett, M. F.(1999). *A comparison of developmental and familial attributes in former East and German adolescents*. The University of Alabama. Ph.D.
- LicKona, T.(1985). Parents as Moral Educators, M. W. Berkowitz and F. Oser(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London: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all, L.(1990). 유교적 인본주의. 유철준 역. *퇴계학보*, 68, 353-357.
- Meredith, B., Abbout, D. A., Tsai, R., & Zheng, F. M.(1992).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Chinese cultures: An exploratory study using the circumplex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22.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 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_\_\_\_\_, Russell, C.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_\_\_\_\_,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 Randall, T. D.(1995). *Assessing family strengths using the family profile: Study to validate and evaluate constructs across four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Utah State University. M.S.
- Satir, V.(1967). *Conjoint family 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technique*.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New York: Berkley.
- Xie, X.(1994).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Ph.D.